

미·중,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 대립 격화

中, 울 인공섬 무기 반입 등 공격적 행보

美, 주변국 관계·신냉전 우려 속 딜레마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완화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 양상을 노출했다.

◇**풀어오르는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 = 남중국해 영토권 분쟁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상그릴라 대화의 '단골 메뉴'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 매립, 등대 건설, 항공기 활주로 건설 등 일방적 행동을 가속화한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이 회의를 자국 입장 옹호와 상대국 비난의 장으로 활용해왔다. 올해는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의 인공섬에 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공식 확인돼 양국의 실정이 더욱 악화됐다.

에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인공섬 조성에 대해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모든 간척 사업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뿐 아니라 누군가가 동중국해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시한다'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쑨젠궈(孫建國)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남중국해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항해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없다'며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행하고 있는 활동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장을 되풀이했다.

◇**딜레마 빠진 미국**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때문에 미국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의 행보를 방관하자니 동맹국들과 멀어질 것 같고 공세적으로 나서자니 신냉전 시대가 열릴 것 같다는 게 요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일본, 필리핀 등 동맹국들 앞에서 중국의 기세를 막아낼 지역의 균형을 자임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를 기점으로 그런 구도를 흔들고 있다. 인공섬을 만들어 활주로, 등대를 건설하고 이동식 대포까지 배치해 주변국을 초조하게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역동적 시장을 보유해 세계를 양분할 수 있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하다는 게 중론이다. WSJ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면 아시아 국가들이 어느 한 편을 지지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 과거 냉전의 두려움을 곱씹을 것으로 내다봤다.

딜레마에 빠진 미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성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WSJ는 시 주석의 영유권 분쟁 지역에 매일 영토를 증축하는 작업을 중국 굴기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인공섬이 과거 100년 동안 이어진 제국주의 굴욕 속에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할 의지의 상징물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결국 중국에 자제하라고 촉구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중 남중국해 갈등 격화

31일 중국,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 조성 및 무기 반입을 비난한 미국에 대해 자국의 활동이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미국이 중간에서 간섭을 불허할 일이라고 있다고 반박.

각국 주장 영유권 분쟁 지역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남중국해 연안국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



북, 외국인 관광객 문호 다시 개방
 텔 접수대의 한산한 모습.

지난해 10월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을 우려해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이 6개월 만인 올해 4월부터 다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3일 평양 한 호텔 접수대의 한산한 모습.

지중해 해상서 5000여명 난민 구조

최근 3일간 리비아 등서 출발

최근 3일간 지중해 해상에서 5000여 명의 난민이 구조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간 벌어진 구조 작전으로 리비아 등지에서 출발한 난민선 25척과 그 안에 타고 있던 난민 5000여명을 구출했으며 시신 17구도 수습했다고 밝혔다. 프론텍스는 난민 500명이 탄 또다른 난민선 5척에 대한 구조 작전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전에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를 비롯해 영국, 몰타, 벨기에 함정과 아이슬란드, 핀란드 항공기 등이 참여했다.

다. 앞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난민선 22척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여 4200명을 구출했다.

이는 하루 구조 인원으로는 기록적인 규모로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12일 3791명, 지난달 2일 3690명이 구조된 바 있다. 지중해에서는 지난 4월 19일 900여명이 숨진 난민선 전복 참사를 비롯해 조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난민 수는 계속 줄어지고 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4만5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했으며 1770여명이 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라크군, 모술 전투서 IS에

美 군용차량 2300대 잃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 6월 모술에서 '이슬람국가'(IS)에 참전했을 당시 미군이 제공한 군용차량 협비 2300대를 잃었다고 밝혔다.

알바디 총리는 이날 이라크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모술이 함락됐을 때 이라크 군경은 많은 무기를 잃었다"며 "모술 한 곳에서만 협비 2300대를 (IS에) 내줬다"고 말했다.

IS 수중에 들어간 협비의 무장 정도가 달라 정확히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중무장한 협비

1000대를 5억7900만 달러(약 6422억 원)에 이라크에 팔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모술에서 이라크 군경이 잃은 협비의 가치는 1조4천77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IS는 홍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이라크 군경에게 탈취한 협비를 차량폭탄 공격이나 야전에서 사용하는 장면을 종종 내보내기도 했다.

이라크 군경은 지난해 6월9일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IS와 전투를 벌였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루만인 6월10일 패주했다.

일본인 절반 "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 사죄 담아야"

일본인 과반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5월 30~31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4.5%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 문구를 담화에 넣어야 한다'고 답

했다. 이는 4월29~30일 실시한 직전 조사 결과(50.4%)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화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2.8%로 직전 조사(36.1%)에 비해 3.3% 포인트 하락했다. 아베 총리는 종전 기념일인 8월 15일 전후에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북에 '탐색적 대화' 제안...북 '무응답'

5월초 한미 합동군사훈련 종료 직후 '뉴욕채널' 통해 전달

미국이 지난 1월에 이어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종료된 직후인 5월초 북한을 상대로 '탐색적 대화'를 갖자고 공식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31일(이하 현지시간)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부의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5월 초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일 3국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대북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도 한 것은 북한이 이 같은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1월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참석하기에 앞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미국은 오는 8월 한미 군사훈련 재개 이

전에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로 볼 때 북·미 직접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북·중 관계 악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어 대화 국면 조성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행정부 임기 내에 북·미가 대화테이블에 앉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 무엇이 정답인가!

NPL과 특수경매만이 정답이다!

특수경매 배우실 분!	공동투자 하실 분!	돈 빌려주실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취급 주 1회 2시간 3개월 완성 1대1 실전사례 교육 임대 / 교육비 등 2200만원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이전으로 보장 연 12% 이상 수익률 투자금 1억원 이상 모든과정 공개 투명처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저당으로 보장 연 12~20% 이자 지급 차용금 1억원 이상 1년~2년 정도 기간 개인신상 비밀 보장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

- 월산동 110-8번지, 34평
-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축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1억 6400만원 (용자 1억 1천만원 안고)
- 전세 1억 4천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65만원 가능)

- 월산동 110-18번지, 19평
- 5층 중 5층, 전방중음, 베란다 있음
- 신우APT 105동역, 즉시 입주
- 매매가 9500만원 (용자 7000만원 가능)
- 전세 8000만원 가능 (삭월세 보 1천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필지
- 동면방향, 화순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말 완공예정
- 매매가 1억 3천 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